

-는 바람에

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

예상치 못하게 끼어들어 일을 망친 원인을 나타냅니다. 여기서 바람은 밖에서 불어와 계획을 넘어뜨린 한 줄기 바람과 같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작 동사	-는 바람에	막히다 → 막히는 바람에
르로 끝남	ㄹ 탈락	울다 → 우는 바람에
항상 -는	지난 일에도	막힌 바람에는 틀림
형용사	불가능	바쁜 바람에는 어색함
결과는 반드시	원하지 않은 일	좋은 결과에는 덕분에
자신의 활동	-느라고	일하느라고 못 갔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항상 -는 바람에이며, 지난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: 차가 막히는 바람에 늦었어요.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하고, 앞에 시제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.

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 동작 동사에만 씁니다. 원인은 갑작스럽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원하지 않은 일이어야 합니다..

이 마지막 조건이 중립적인 이유 어미와 구별되는 점입니다. 비가 오는 바람에 소풍이 취소됐어요는 자연스럽게, 비가 오는 바람에 시원해졌어요는 시원해진 것이 좋은 일이므로 어색합니다.

-느라고와(과)의 차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. -느라고는 자신의 활동 때문에 시간을 빼앗겼다는 뜻이고, -는 바람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차가 막히는 바람에 회의에 늦었어요.
- 2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소풍이 취소됐어요.
- 3 아이가 우는 바람에 통화를 못 했어요.
- 4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화면이 깨졌어요.
- 5 손님이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급하게 음식을 만들었어요.
- 6 알람이 안 울리는 바람에 지각했습니다.

■ 비교

-느라고
둘 다 결과가 좋지 않지만, -느라고는 자신이 하던 일을, -는 바람에는 상황을 탓합니다.
일하느라고 못 갔어요. (일을 하느라) / 차가 막히는 바람에 못 갔어요. (차가 막혀서)

-(으)ㄴ/는 탓에
탓에는 흔히 사람이나 부족한 점에 잘못을 돌립니다. -는 바람에는 그냥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.
준비가 부족한 탓에 실패했어요. (우리 잘못) / 비가 오는 바람에 취소됐어요. (비가 끼어들)

-아서/어서
-아서는 중립적이며 형용사에도 붙습니다. -는 바람에는 갑작스러움과 나쁜 결과의 뉘앙스를 더하며 동작 동사에만 붙습니다.
비가 와서 취소됐어요. (중립) / 비가 오는 바람에 취소됐어요. (뜻밖의 일로)

■ 주의

- ✗ 어제 차가 막힌 바람에 늦었어요.
- 어제 차가 막히는 바람에 늦었어요.
문장의 시제와 상관없이 형태는 -는으로 고정됩니다. 과거는 마지막 동사에 표시합니다.
- ✗ 비가 오는 바람에 날씨가 시원해졌어요.
- 비가 와서 날씨가 시원해졌어요.
-는 바람에는 원하지 않은 결과가 필요합니다. 좋은 결과에는 -아서나 덕분에를 쓰세요.
- ✗ 요즘 바쁜 바람에 연락을 못 했어요.
- 요즘 바쁜 탓에 연락을 못 했어요.
이 어미는 동작 동사에 붙습니다. 바쁘다는 형용사이므로 다른 이유 어미가 필요합니다.